



이문열·신영우 만화 수호지 8(전10권)

시내암 원작 | 이문열 옮김 | 신영우 각색·그림
반양장 | 46배판 | 200쪽 | 값 9,500원 | 8세부터 | 2015년 9월 9일 펴냄
ISBN 978-89-6548-117-1 77820/ 978-89-94629-14-8(세트)

우리 시대의 거장 이문열과 캐릭터의 마술사 신영우가 만났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고전 문학 『수호지』의 결정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이문열·신영우 만화 수호지』 8권이 고릴라박스에서 출간되었다. 대한민국 대표 작가 이문열의 『수호지』를 원작으로 하여, 『키드 갱』으로 국내 만화계에 코믹 붐을 일으켰던 신영우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그려 냈다. ‘캐릭터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신영우 특유의 재치와 만화적 표현으로 되살아난 108 영웅호걸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쉽고 재미있게 『수호지』라는 고전과 만나게 한다.

『수호지』는 『삼국지연의』, 『서유기』, 『홍루몽』과 함께 중국의 ‘사대기서’로 불리는 고전 명작이다. 이 가운데 서민의 생활상, 다양한 인간상을 그린 가장 서민적인 대중 소설이자 나라의 흥포에 대한 서민의 울분과 바람을 담고 있는 민중 문학으로도 평가받는다.

『이문열·신영우 만화 수호지』는 개성만점 주인공들의 특성을 잘 살려 아이들에게 원작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한다. 책 뒷부분에는 사진과 삽화가 풍부한 정보 페이지를 두어 아이들이 중국의 역사와 문화, 어렵고 딱딱한 고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실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용기와 지략, 신념 등 우리가 꼭 지녀야 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했다. 이번에 출간된 8권에서는 노준의를 구하기 위해 북경성을 공격하는 양산박 두령들의 이야기와, 건강에 문제가 생긴 송강을 치료하기 위한 장순의 여정을 다룬다. 이 시리즈는 앞으로 10권까지 나올 예정이다.

● 호방함과 유쾌함이 넘치는 수호지!

신영우는 이문열이 창조한 웅장한 필체의 『수호지』를 호방함이 넘치는 그림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인물 하나, 배경 하나마다 정성을 쏟아 작품성을 높였다. 한편 만화의 재미는 놓치지 않아, 지루할 틈이 없다. 『이문열·신영우 만화 수호지』 8권에서는 병서에 능통한 관우의 후손 관승, 의술이 뛰어난

신의 안도전, 정의롭고 지혜로운 급시우 송강, 양산박의 제갈량 지다성 오용 등 개성 넘치는 호걸들의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 어린이도 쉽고 재미있게 읽는 만화 수호지!

『이문열 · 신영우 만화 수호지』는 어른들의 소설을 만화로 각색하여 아이들이 고전 문학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 흥미 위주의 읽을거리가 아닌 정치, 사회, 문화 등 현대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고전 문학의 첫 번째 단추 역할을 한다. 또한 어려운 용어는 가능한 배제하고, 뜻풀이를 더하는 등 어린이 눈높이에서 그랬기에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아이들은 역동적인 그림 속에 펼쳐지는 108 호걸의 삶을 보며, 옳은 일에 앞장서는 정의로움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배울 수 있다.

● 흥미진진 108 호걸을 따라가면 중국 역사 끝!

『이문열 · 신영우 만화 수호지』에는 중국 역사와 문화가 잘 녹아 있다. 송나라를 중심으로 한 국제 관계, 당시 사회 체제 및 서민들의 생활상, 더 나아가 창과 봉 등 무기 문화까지 다룬다. 이처럼 다양한 중국 역사와 문화를 아이들이 쉽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책 뒷부분에 학습 페이지 ‘아는 만큼 재미있는 수호지’를 실었다. 또한 ‘수호지 호걸 열전’에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특징,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수록하여 보는 재미를 더한다.

● 차례

북경으로 진격하다
동경의 구원병
대도 관승과의 싸움
관승과 삭초를 품 안에
신의 안도전을 찾아서
또다시 북경으로
북경, 마침내 떨어지다
조개 두령의 원수를 갚다
모두 모인 108호걸
아는 만큼 재미있는 수호지

● 작가 소개

원작 시내암 | 중국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에 활동했던 작가로, 생애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지금의 중국 장쑤성에서 태어났으며, 관직에 있다 상사와의 불화로 고향으로 돌아가 글을 썼다고 한다. 원나라 말에 장사성이 일으킨 농민 봉기에 참가했으며, 창작에 열중하면서 『삼국지연의』의 작가 나관중과 친분을 쌓았다. 지은 책으로는 『수호지』, 『삼수평요전』, 『지여』 등이 있다.

윤킴 이문열 |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북 영양 등지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사람의 아들』, 『젊은날의 초상』, 『황제를 위하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시인』, 『호모 엑세쿠탄스』, 평역소설 『삼국지』, 『수호지』, 『초한지』 등이 있다. 오늘의 작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그의 작품은 현재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20여 개국 15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고 있다.

각색·그림 신영우 | 1971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1994년 『주간 파워』에 『벌거벗은 남자』로 데뷔했다. 『남자 만들기』, 『레드 자켓』, 『키드 갱』, 『더블 캐스팅』, 『서울협객전』 등을 연재했으며, 이중 갱스터 육아 코미디 『키드 갱』과 쌍둥이 형제의 복수를 그린 『더블 캐스팅』은 각각 TV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다. 평범한 상황을 만화적 코드로 풀어내는 발군의 재능과 연출력을 겸비한 대한민국 만화의 자존심이다. 현재 레진코믹스에 『더블 캐스팅 2014』를 연재하고 있다.

● 상세 이미지





주요지
유형별현 관우의 관생 관승

큰 칼(청룡 인형도)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대도'라고 불린 관승은 『삼국지』의 영웅인 관우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큰 키에 긴 수염, 대추처럼 붉은 얼굴까지 생김새도 관우와 꼭 닮았다고 해요.

신이 된 관우와 그의 후손



중국 신시 성에 있는 관우의 사당

『삼국지』에 나온 등장인물들은 각기 개성이 뚜렷한 만큼 하나같이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을 뽑으려면 비로 관우일 것입니다. 실제로 관우는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신처럼 모셔졌습니다. 땅나라의 요청을 받아 우리 나라에서도 관우를 모신 사당을 지었는데 '동묘'가 바로 그것이지요. 이처럼 관우의 높은 인기를 의식하여 시내안이 일부러 『수호지』에 관승을 등장시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나관공과의 친분 때문에 그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승이라는 인물을 새롭게 창조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적으로 만난 송강과 손을 잡다

관승은 관우의 후손답게 무예가 뛰어나고 병법에도 밝습니다. 이를 한눈에 알아본 송강은 "저렇게 당당한 영웅의 품모는 처음 본다."며 감탄했지요. 관승 역시 자산을 장군으로 대우해 주는 송강의 넓은 아량과 인품에 반해 양산박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관승은 양산박의 오호장(다섯 명의 호랑이 대장) 중 한 명이 되어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주요지
유형별현 성질이 급한 삭초

삭초의 별명은 '급선봉'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해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앞에 나서는 경수였지요. 삭초는 급선봉이라는 큰 도끼를 주로 썼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모습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삭초를 얻기 위한 양산박의 합정

삭초는 관승과 마찬가지로 양산박을 치기 위해 왔던 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승이 먼저 양산박에 합류하게 되자 홀로 양산박 요격들을 상대해야 할 처지에 놓였지요. 하지만 용맹한 삭초는 절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치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송강의 활정한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결국 송강에게 사로잡힌 삭초는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인 양지의 설득에 넘어가 양산박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가장 선두에 서다

삭초는 양산박의 일원이 되자마자 송나라 조정의 커다란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언제나 양산박 무리의 선두에 있고, 무에 솔제가 뛰어나 큰 도끼를 휘두르며 조정의 장수들을 해치웠기 때문이었지요. 물론 닦도 워낙 빨라 양산박의 기병군인 '관포기'의 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삭초의 이름을 선택하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요. '삭초'이라는 한자를 '책'으로 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